

四

2

11

152. P. I

卒國斗 國慶이 부족하니 黑마시을 듣고 밖에 나니 벌거벗은 級五  
六·二五坐燭被拉蚊人士 欲其會以陰而其正以明而其音을 떠나 이자  
二五坐燭被拉蚊人士 欲其會 165

法 改 是 萬 合 人 士 皆 起 慶 賀 으 르 서 九 · 二 八 進 徒 서 출 예 시 祖 城  
外 예 具 徒 三 月 軍 軍 軍 北 道 行 풍 華 仁 士 例  
道 行 方 그 데 끄 될 수 있 는 道 故 出 하 르 자 調 道 路 늘 北 道 各 道  
이 道 道 합 태 있 었 음 니 다 그 데 나 誓 力 는 서 회 물 외 故 力 자 머 부  
러 서 회 물 보 하 여 금 아 부 려 成 采 五 가 죄 오 저 끄 합 예 죄 아 죄 誓  
을 改 證 합 예 아 죄 不 惑 仁 誓 改 證 仁 誓 합 예 죄

國思社)에 6·25勃頭是 土地, 우리나라의 財源文化 工業과  
經濟的 土地財產 利益이 關係이 아니고 想想的 並且 精神的土  
地 財產의 武裝營 領導者 高貴者 各界各層의 革命指導者有斗  
爭者 賽失者 亂逃者 握著外銷者나 亂軍과 捕殺者 一朝

들은 비록 戰績에서 誓功을 試고 選擇에 啟奏함은 아니하였  
거 손자마저도 우려의 慮懼充塞에 痛呼에서는 아니될것이  
戰士의 용은 예전에 豪傑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人文을 救出  
이야말로 一矢之報과 治亂이 끝드는 選擇에 있어서는 舊先務  
이기 도를 人道의 소연도 政績히 예결수보는 우려 氏務의 至  
上을 살이 아니 수첩을 나와 서회들은 그들의 아우의 蘭毒한 唐  
성자 西州 속에서도 오르자 祖國에 바친 丹心이 立여지 않았으  
며 또 立여지 않았다는 直接의 일 좋은 遊左를 去平調監院가  
平壤人咸時에 平壤刑務所 内贍에 그여자 忠壯한 姓俞희 아니  
她翁號에서 覺見하였을나마 친정한 刑務所內贍에 이런 謂暢하  
고 真切하면서도 趙國을 사방하고 世界自由國을 廣본 忠誠  
의 그 힘자들 차 있었을나마

원본 대조록	(15)
총 도	2500
정부기록보존소 보존증서 신분에서 차지 임의전 장디스크로부터 복사되었음을 증명함.	
20 (-용도) 2004.03.24 금강 영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사용	

「自由이 그대는 不死鳥

뒤에 무고

우리는 祖國의 江山을  
紅煙異丈 鐵의 強者여

죽업의 地獄으로 끌려 가노라

祖國이어 胜利이  
地獄으로 가는 우리를 救出하니  
준다는 것은

우리의 儲金이라」

이 얼마나 真切하고 痴狂하며 一片 바친 祖國을 지바여지

할 큰 儲金이오리까? 죽임行도 爲是 祖國世 사망하고 自由

들 사망하니 그들의 마을은 燈光시비지간 못하였으니라

그들은 路方 捍越途中 被용 貧餒에 들어지니 痘苦에 痘苦

을 踏은 路苦의 形容을 不好하니 菊瓣의 死魂을 殘호 굳은

生魂에 서둘리며 北韓에 謂却 南國의 東北地方로는 西伯利

아의 어느곳에 腹脹원복과 腹痛과 腹瀉을 首受하여서 오직

故出의 손이오기를 請首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儲金으로

써 이것을 구제하고 있음을 알니라 祖國의 祖國가 될수가 없

으며 寶強한 나라의 頭道에 誓諾함 그들의 生始은 오직

우리들의 血緣으로서가 아니라 이 血緣에 한 仁貞을 超越

하여 祖國의 親類에서도 切齒怨讐 御天罔地 衡못을 賦할진

마이었을테다 無言에 自由國家人民들은 道教 「서교」에 聖潔

肅한 할사람의 新聞記者의 去就에 至大한 憾心을 던지는게

바하여 서리오 諸君 閑諭의 休戰會議은 우리들의 祖國統一이

발전의 遷牛에서 世界의 成熟其集中시키고 閑諭을 보았을

줄니까 저희들은 例報을 둔고 不出擊地 祖國의 前途에의

沃濱을 越過한바 있었을테다 困死 休戰의 無遺殊斗 共盡

徒勞의 道作임을 看破하고 오직 우리의 祖國이 一貫 부르짖

一大因足運動을 이르진마는 여기에 새삼스레히 아흔 흐드

흐트 것임이다 當時 저희들은 그休戰會議에 遷移에 좋은

합의의 騎驅을 받을 만한 節件 그것을 完遂함으로써 당시

240221R00373215020004

이 능력은 國力의 異常 보임이 볼 수 있다는 言을 新聞報

道의 面에서 覺察하니 一方而 차고 一方 크다면 治亂世 가  
진다는 바 諸이 아니라 六·二五當時 拉致하여 般 外國人實數

而 外國民數 그 個 外國市民의 過道者 被取한 休戰會戰中의  
一隻 船에 있음니마 이 安全는 乃 船上 人道의 救濟인 事例의 体

大才로 高超한 認識이 아닐수 없으나 且 서회들이 有이  
敎化하는 바입니다 그 영국연 良운 路由를 잘 알고 船에 船은 船

船에서 소체 自由를 為하여 且 船한 船乘의 船中에 且 船원  
우리 船 船의 船客者도 이 지에 既고의 船客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같네라 真理由는 이 것에 아울로 且 船의 船上 船客임 진에

우리 船의 船客者 바하니 여기에서 船外 船客있고 나아가 船外  
여서는 且 船 船에 邊背가 되는 船外 船客

而 下 而 拉致 人士의 拔出船을 一日 拔掉 拔掉하여 船外 船家  
에 송은 船客가 있게 하니 주시우 且 船으로 船에서는 더욱 船

을 더 船客과는 使命에 그려도 船의 船客의 船으로서의  
船客에 且 船 以게하고 우리 船 으로 하여서는 더욱 船之 한

人船의 船客과 逍遙한 船客에 한 말이 船客 船客 船史에  
船場의 船客자 물 以하게 하모 주시우 家族으로 하여서는 拉致  
船客 船客 船客의 二重 使命에서 船客의 船客 船客 알게 되는 同

時에 生의 船客을 찾게 하여 다시금 船客에 船客하니 이나지 船  
수 있는 기물들 船客이 주시우 기물 船客 船客 船客 船客  
여부 끝으로 拉致 船客 人士의 生命은 自由로 살아 船客을

不解하는 마이오 船客에 바친 心이 허무리지는 船刑도  
虐待도 船客을 다시금 船客 船客 오며 그 船의 船客에는 船少한  
船도 船을 船客하는 바입니다

而 下 船客은 일되어 船의 船客에 넘치고 生命의 船客을  
제회를 해 영저주설 船의 船客였기 만큼 소체 소체 新聞報  
고 있었나이다

舊紀四二八四年九月一日

大立奉慶被殺致人之未獲拿在燒花燈光前 金鉢面書題  
惟此年號失考